

韓國教育論叢

Kore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19. VOL.40 No.2. pp.17~33

## 茶山 『대학공의(大學公議)』에서 교육주체들의 관계 고찰

### - 효(孝)·제(弟)·자(慈)를 중심으로 -

조 문 숙<sup>1)</sup>

고려대학교

#### <요 약>

본고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대학공의(大學公議)』에서 나타나는 교육 주체들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여 그가 『대학공의(大學公議)』에서 주장하고자 하였던 궁극적인 실천윤리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다산의 『대학공의』는 그가 53세일 때 유배지인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저술한 책으로써 특히 ‘공의(公議)’라는 명칭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대학공의』는 『대학』에 관한 다산의 공정하고도 공평한 견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시 보편화된 주자의 『대학장구(大學章句)』에 대한 비판의식이 전제된 것이기도 하다. 주자는 훈고(訓詁)에서 『대학(大學)』을 대인(大人)의 학문이라 풀이하여 어린이의 학문과 대소(大小)로 대조를 이루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배워야 하는 학문으로 그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반해 다산은 『대학』을 가리켜 경문(經文)에서 말한 ‘태학의 도[大學之道]’는 태자를 가르치는 도이지, 분명 백성을 가르치는 도가 아니며, 이를 ‘태학의 도’라 말할 수는 있지만 ‘향학의 도[鄉學之道]’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여 『대학』을 나라의 태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장소로써 해석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유학의 이념으로 명명덕(明明德), 친민(親民), 지어지선(止至於善)의 삼강령(三綱領)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산은 『대학』의 실천윤리는 효·제·자(孝·弟·慈)이며 효·제·자야말로 명덕(明德)이라고 풀이한다. 또한 효·제·자를 가리켜 백성을 효도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아들이 된 사람은 그 부모에게 친하게 하며, 백성을 공경으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동생 된 사람은 그 형에게 친하게 하고 백성 가운데 어린 사람은 그 웃어른에게 친하게 하며, 백성을 자애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아버지 된 사람이 그 자식에게 친하게 하고 백성 가운데 웃어른 된 사람이 그 어린 사람에게 친하게 한다. 그러므로 태학의 도는 친민(親民)에 있다고 하여, 주자의 신민(新民)을 부정하고, 효·

1) 교신저자, tojms@naver.com

제·자를 친민(親民)의 실천윤리로 제시한다. 다산은 임금이 이러한 효·제·자를 실천하면 백성에게까지 그 가르침이 미치어 백성들에게 또한 효·제·자의 실천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효·제·자라는 대학의 실천윤리가 단지 나라의 태자에게만 교육되어져야 할 것이 아닌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효·제·자(孝·弟·慈)는 인륜(人倫)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렇듯 다산이 유학의 실천윤리로 제시한 효·제·자(孝·弟·慈)에는 『대학』에서의 교육적 내용과 교육적 관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제·자(孝·弟·慈)가 인륜이라고 할 경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교육적 관계들은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제·자(孝·弟·慈)에 내포되어있는 교육적 관계들의 주체와 객체를 구체화 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산이 『대학공의』에서 주장하고자 하였던 구체적인 실천윤리를 더욱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다산이 풀이한 『대학공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다산, 정약용, 대학, 대학공의, 효, 제, 자, 명명덕, 친민, 교육, 관계

## I. 서론

본고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대학공의(大學公議)』에서 나타나는 교육 주체들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다산의 『대학공의』는 그가 53세일 때 유배지인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저술한 책으로써 특히 ‘공의(公議)’라는 명칭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대학공의』는 『대학』에 관한 다산의 공정하고도 공평한 견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시 보편화된 주자의 『대학장구(大學章句)』에 대한 비판의식이 전제된 것이기도 하다. 2)다산은 여러 문헌들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는데, 그의 의도는 『대학공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학은 본시 『예기(禮記)』49편 가운데의 42번째 편으로 들어 있던 것으로써 주자는 훈고(訓詁)에서 『대학(大學)』을 대인(大人)의 학문이라 풀이하여 어린이의 학문과 대소(大小)로 대조를 이루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배워야 하는 학문으로3) 그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반해 다산은 『대학』을 가리켜 경문(經文)에서 말한 ‘태학의 도[太學之道]’는 태자를 가르치는 도이지, 분명 백성을 가르치는 도가 아니며, 이를 ‘태학의 도’라 말할 수는 있지만 ‘향학의 도[鄉學之道]’라고

2) 지준호(2003), 「『大學公議』를 통해 본 茶山 丁若鏞의 『大學』觀」, 한국철학논집, 한국철학사연구회, 12권, p.21.

3) 『大學公議』 : 朱子於此 遂改書名曰大學, 讀之如字, 訓之曰大人之學, 與童子之學 大小相對, 以爲天下人之通學.

말할 수 없다.<sup>4)</sup>라 하여 『대학』을 나라의 태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장소로써 해석한다. 주자의 해석은 『대학』이란 학문은 만백성이 배워야 하는 학문으로써 서민의 자제들도 『대학지도』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다산의 해석은 『대학』을 나라의 태자들만이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로써 그 대상으로 제한한다. 다산이 이처럼 『대학』을 태자만이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제한한 이유는 당시의 시대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왕권을 견제하고 세도를 장악하려는 사대부들이 횡행하는 정치상황에서 정치개혁의 주도권을 가져야 할 왕권을 수호하려했던 다산으로서는 사대부를 견제하고 왕권강화를 주장<sup>5)</sup>하기 위해 교육에서부터 차별성을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연 다산이 풀이한 『대학』을 한 나라의 태자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의 유학의 이념을 명명덕(明明德), 친민(親民), 지어지선(止於至善)이라는 삼강령(三綱領)을 제시하며<sup>6)</sup>, 『대학』의 실천윤리는 효·제·자(孝·弟·慈)이며 효·제·자(孝·弟·慈)야 말로 명덕(明德)이라고 풀이한다.<sup>7)</sup> 그 근거로써 다산은 “허령불매, 심통정성, 이라는 것, 기라는 것, 명이라는 것, 혼이라는 것은 오직 또한 군자가 생각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지는 하지만 결코 예전 태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던 제목은 아니며, 뿐만 아니라 오직 이 성의와 정심이라 하는 것도 효·제를 실천하는 오묘한 이치요 방략일 뿐, 가르침의 제목은 아니다 가르침의 제목은 오직 효·제·자 일 뿐이다.” 하였으며 “영묘하고도[虛靈] 어둡지 않은 마음이 성정(性情)을 통괄하는 것을 ‘이(理)’라고 하거나 ‘기(氣)’라고 하거나, ‘밝다[明]’고 하거나 ‘어둡다[昏]’고 하는 등의 주장은, 비록 또한 군자들이 마음을 다하는 부분이지만, 결코 옛날 태학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주제[題目]는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른바 ‘성의(誠意)’나 ‘정심(正心)’이라는 것도 효(孝)·제(弟)를 행하는 오묘한 이치나 방책[方略]일 뿐, 가르침의 주제[題目]는 아니다. 가르침의 주제[題目]는 효·제·자 세 가지뿐이다.”<sup>8)</sup>라 말하며, 대학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닌 오로지 효·제·자에 있을 뿐임을 강조한다. 또한 다산은 『서경(書經)』 「요전(堯典)」에서, “삼가 오전(五典)을 빛낸다, 공경히 오교(五教)를 편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오전과 오교는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애롭고,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하고, 아들을 효도함이다. 『춘추전(春秋傳)』(문공 18년)에서 말한 태사극의 말 역시 이처럼 명백하다. 그러나 형우제공(兄友弟恭)을 합하여 말하면 제(弟)이며, 부의모자(父義母慈)를 합하여 말하면 자(慈)이다. 그러므로 효·제·자 세 글자는 오교(五教)를 총괄한 말이다. 태학에서 태자를 가르치고, 태자가 백성을 보살핌은 이 세 글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sup>9)</sup>라고

4) 『大學公議』: 經云“大學之道”, 是爲教胄子之道, 明非教國人之道. 是可云太學之道, 不可云鄉學之道.

5) 신지연(2007), 「茶山の 『다산』에 대한 觀點과 解釋」, 한문고전연구 15, p.161.

6) 『大學章句』經文一章: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7) 『大學公議』: 明者, 昭顯之也. 明德也, 孝弟慈.

8) 『大學公議』: 虛靈不昧, 心統性情, 曰理曰氣, 曰明曰昏, 雖亦君子之所致意, 而斷斷非古者太學教人之題目. 不寧惟是, 並其所謂誠意·正心, 亦其所以爲孝弟之妙理方略而已, 非設教之題目也. 設教題目, 孝弟慈而已.

9) 『大學公議』: 堯典曰“慎徽五典”, 曰“敬敷五教”. 五典·五教者, 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也. 春秋傳史

하여 효·제·자 만이 가르침 즉 교육의 근본임을 주장한다.

즉 다산은 『대학』은 본디 『태학』으로써 나라의 『국학』이며, 이러한 『태학』에서는 나라의 천자와 공경대부들만이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이고, 태학에서 배우던 모든 교육은 효·제·자(孝·弟·慈)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명덕을 효·제·자라 인식하고 명명덕을 효·제·자의 실천이라 하여, 효·제·자(孝·弟·慈)야 말로 지도자의 교육내용이라 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과연 『대학』의 실천윤리라고도 할 수 있는 효·제·자는 태자만이 지녀야 할 덕목을 말함인 것인가? 다산은 경문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예전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한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니, 옛 문장은 모두 끌어 일으키고 일치하여 잘 어울리고 있다. 이로 보면 명명덕에 대한 전체 해석은 마땅히 치국평천하 부분에서 찾아야 하는 바이다. 이에 심성혼명의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 오직 치국평천하 절의 윗부분에서 “효도는 임금을 섬기는 까닭이며, 공경은 어른을 섬기는 까닭이며, 사랑은 백성을 부리는 까닭이다.”고 하였고, 그 아래 부분에서 “임금이 나이 든 사람을 나이 든 사람으로 받들면 백성이 효도의 기풍을 일으키고, 임금이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하면 백성이 공경의 기풍을 일으키고, 임금이 외로운 사람을 근심하고 돌보면 백성들이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와 아래의 주된 뜻은 모두 효·제·자 세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이것이 곧 명명덕의 바른 뜻이다.<sup>10)</sup>

이는 임금이 효·제·자를 실천하면 백성에게까지 그 가르침이 미치어 백성들에게 또한 효·제·자를 실천하게 된다. 이것은 효·제·자라는 대학의 실천윤리가 단지 나라의 태자에게만 교육되어져야 할 것이 아닌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효·제·자(孝·弟·慈)는 인륜(人倫)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다산이 주장한 효·제·자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또한 다산이 주장한 『대학』이란 교육기관과 효·제·자 라는 교육내용 안에는 어떠한 관계가 내재되어있으며, 효·제·자를 실천하는 교육적 주체와 객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러한 효·제·자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 되어져야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산의 『대학공의』를 주요텍스트로 하며 다산의 여러 저서를 부차적인 사료로 삼아 유학의 실천윤리로서의 제시한 효·제·자(孝·弟·慈)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안에 형성되어있는 교육적 내용과 주체들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克之言明白如此。然兄友弟恭，合言之則弟也。父義母慈，合言之則慈也。然則孝弟慈三字乃五教之總括。太學之教胄子，胄子之觀萬民，其有外於此三字者乎。

10) 『大學公議』: 經曰,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古文皆有引起照應, 則“明明德”全解當於“治國平天下”節求之矣, 乃心性昏明之說絕無影響。惟其上節曰“孝者所以事君也, 弟者所以事長也, 慈者所以使衆也”, 其下節曰“上老老而民興孝, 上長長而民興弟, 上恤孤而民不倍”, 兩節宗旨, 俱不出孝弟慈三字, 是則明明德正義也。

## II. 효(孝)의 아래에서 위로의 관계

다산은 효·제·자가 곧 명덕이라 하여 효·제·자를 강조하였다. 또한 효·제·자를 가리켜 백성을 효도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아들 된 사람은 그 부모에게 친하게 하며, 백성을 공경으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동생 된 사람은 그 형에게 친하게 하고 백성 가운데 어린 사람은 그 웃어른에게 친하게 하며, 백성을 자애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아버지 된 사람이 그 자식에게 친하게 하고 백성 가운데 웃어른 된 사람이 그 어린 사람에게 친하게 한다. 그러므로 태학의 도는 친민(親民)에 있지 않겠는가<sup>11)</sup>라 하여, 주자의 신민(新民)을 부정하고, 효·제·자를 친민(親民)의 실천 윤리로 제시한다. 즉 다산은 효·제·자가 대학의 실천윤리라 주장한 것이다. 이 중에서 효(孝)는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으로써 과거 맹자는 “사람마다 그 아버이를 아버지로 섬기고 그 웃어른을 웃어른으로 섬기면 천하가 다스려 진다” 하였고,<sup>12)</sup> 효경에서 공자가 이르길 “무릇 효(孝)란 모든 덕(德)의 근본이고, 교육과 학문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sup>13)</sup> 이는 효도라는 것은 모든 덕을 실천하는 근본이 되는 동시에 교육과 학문의 시작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맹자와 공자의 가르침은 다산이 말하고 있는 효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산 또한 『대학공의』에서 효를 실천윤리로써 가장 첫 번째로 제시 할 만큼 중요한 덕목으로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효라는 것은 어떻게 실천하여야 하는 것인가. 효경에서 이르길 ‘무릇 효라는 것은 아버이를 섬기는 데서 비롯해서, 다음에 임금을 섬기고 끝으로 입신하는데 있다.’ 고 했다 또한 ‘대아(大雅)에 이르기를 ‘너는 너의 조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오직 그 덕을 본받아 닦아야 한다.’<sup>14)</sup>라 이르고 있다. 이것은 효도의 단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시작은 아버이를 잘 섬기는 데에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맡은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있으며, 효도의 완성은 세상에 이름을 드날려 부모와 가문을 빛나게 하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효경에서는 ‘작은 효는 부모 곁에 맴돌며 부모의 시중을 드는 것이고, 큰 효는 세계를 무대로 큰일을 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데 있다하여 《시경(詩經)》의 대아편(大雅篇)에서의 조상의 위대한 업적과 가르침을 잊지 말고, 늘 조상에게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효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효의 실천방법으로 효경에서는 신체발부(身體髮膚)는 모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상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입신(立身)해서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날려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의 완성이다.<sup>15)</sup>라고 하여 부모가 주신 몸을 소중히 하고 노력하여 출세하는 것이 실천의 구

11) 『大學公議』: 教民以孝, 則民之爲子者親於其父, 教民以弟, 則民之爲弟者親於其兄, 民之爲幼者親於其長, 教民以慈, 則民之爲父者親於其子, 親之爲長者親於其幼. 太學之道, 其不在於親民乎.

12) 『孟子』離婁上: 孟子曰, 人人親其親, 長其長, 而天下平.

13) 『孝經』開宗明義章: 子曰, 夫孝德之本也, 教之所繇生也.

14) 『孝經』開宗明義章: 夫孝始於事親, 中孝於事君, 終於立身, 大雅云, 亡念爾祖聿修其德.

체적인 방법이라 제안한다. 다산은 효의 실천을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자는 한 번 따듯함을 살피더라도 반드시 정성을 다하고, 한 번 시원함을 살피더라도 반드시 정성을 다하고,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더라도 반드시 정성을 다하고, 한 번 의복을 씻더라도 반드시 정성을 다하고, 술과 고기로 손님을 대접하더라도 반드시 정성을 다하고, 조심스레 간언하여 잘못이 없으시도록 하더라도 반드시 정성을 다 해야 하니 이를 ‘성의(誠意)’라 한다.<sup>16)</sup>고 해석하며 효를 행함에 있어서 성의를 다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의 실천을 행하는 주체는 누가되며 그것의 객체 즉 대상은 누구를 말함인가. 또한 이러한 효 안에 내재되어있는 구체적인 교육적 관계는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효라는 것은 가정에서는 자식이 행해야 하는 도리로써 자식이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교육의 주체는 효를 행하는 자식이 될 것이며 그 대상은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는 자식이 효라는 교육을 행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아래로부터 위로 행해지는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는 비단 가정 안에서만 한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근거로 다산 또한 『대학』이라는 것을 태자가 배우는 곳 즉 학문적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였고, 현재의 개념으로 학문적 공간은 즉 학교를 말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는 가정뿐만이 아닌,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가문과 국가에 까지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안의 교육적 관계를 살펴본다면 가정에서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관계, 가문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관계, 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관계가 모두 효에 해당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에서는 백성이 임금을 섬기는 것으로 발전하여 결국 천하를 다스리는 기본덕목으로 이루어 질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하자면 효는 아래에서 위로의 수직적 관계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산은 단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섬기며,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산은 이것을 가리켜 효·제·자의 실천이 곧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효과 곧 임금을 섬기는 충이라는 개념은 다산의 『대학강의(大學講義)』에서도 잘 나타난다.

서유린은, “여기에서 ‘효라는 것은 임금을 섬기는 근거’라고 하니, 자식으로서 효도를 함은 반드시 임금을 섬기고자 하여 효도를 한 것인가?” 라고 하였다. 다산이 대답하여 말하길 내가 생각하기에, 충·효는 본래 두 가지가 아니다. 효도하는 마음을 옮겨 충성을 하고, 효에서 충을 구한다고 하니, 어떻게 이를 나누어 말할 수 있겠는가.<sup>17)</sup>

15) 『孝經』開宗明義章：身體髮膚，受之父母，弗敢毀傷，孝之始也，立身行道，揚名於後世，以顯父母，孝之終也。  
 16) 『大學公議』：欲孝於其父者，察一濫必誠，察一清必誠，具一甘旨必誠，濯一衣裳必誠，酒肉以養賓必誠，幾諫使無過必誠，斯之謂誠意也。  
 17) 『大學講義』傳九章：徐有隣曰，“此云‘孝者，所以事君也’，人子之爲孝也，必欲事君而爲之耶。” 鏞曰 “忠孝本無二致，移孝爲忠，求忠於孝，豈可分而言之乎。”

다산이 생각한 효는 가정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백성이 효를 실천하면 이것은 바로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산은 태자 즉 임금이 이러한 효를 실행하면 백성은 자연히 효의 기풍을 일으키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몸소 효를 실천하면 그것을 본받아 많은 백성들이 효를 실천한다고 풀이한다. 18) 『대학공의』에서 보여지는 상노노(上老老)는 효와 직결되는 부분으로써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은 효도이다.19)라는 뜻을 갖고 있다. 또한 노인을 노인으로 섬기는 것 또한 상노노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은 경에 이르길 윗사람이 노인을 공경하면 백성들이 효도한다고 했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효도하게 한 자가 백성을 친히 여기는 것 20)이라 하여 나라의 임금이 나라의 노인을 공경하면 그것을 본 백성들은 자연히 효도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른바 천하를 평정함이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다는 것은 윗사람이 노인을 노인으로 받들면 백성들에게 효의 기풍이 진작되며21), 노노(老老)라는 것은 천자가 늙은이를 받들어 모심22)을 일컬어, 효를 행하는 자는 임금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임금조차 행하는 효를 당연히 백성 된 자들도 따라 해야 함을 효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다산은 이러한 효의 실천이 치국평천하로 이어지며, 효를 통하여 나라의 평안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다산이 말하고 있는 효라는 것은 인륜(人倫)으로써의 덕행이므로 태학에서 임금의 교육으로 이루어 지지만 그것은 자연히 백성들에게도 해당하는 교육적 덕목이라는 풀이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다산에 따르면 부모에 대한 효도도 선천적 본성만으로 이룰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서 항상 誠意·正心の 노력이 필요한데, 가까운 친숙에게도 이런 노력을 기울일 수 없다면 나머지 일은 결국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효는 바로 그것을 통해 타인을 만나고 타인을 정당하게 대우하며 그를 섬기는 모든 유형의 인간관계의 기본원리로 간주된 것이다. 23)

그러므로 다산의 『대학공의』에서 보여지는 효의 교육적 관계는 큰 의미로는 나라의 임금이 아버지와 윗사람을 섬기는 관계가 나아가 백성들에게도 전해져 자식이 아버지를 혹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교육적 관계로 시작하여 그것이 나라의 평안으로 이어지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18) 『大學公議』: 經曰,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古文皆有引起照應, 則“明明德”全解當於“治國平天下”節求之矣, 乃心性昏明之說絕無影響. 惟其上節曰“孝者所以事君也, 弟者所以事長也, 慈者所以使衆也”, 其下節曰“上老老而民興孝, 上長長而民興弟, 上恤孤而民不倍”, 兩節宗旨, 俱不出孝弟慈三字, 是則明明德正義也.

19) 『大學公議』: 親其親者, 孝也.

20) 『大學公議』: 經曰“上老老而民興孝”, 使民興孝者, 親民也.

21) 『大學公議』: 所謂平天下在治其國者, 上老老而民興孝.

22) 『大學公議』: 老老, 謂天子養耆老也.

23) 백민정(2007), 「丁若鏞철학에서 ‘孝弟’관념이 갖는 公的의미」, 한국 실학연구 23, p.277.

### III. 제(弟)의 수평적 관계

전장에서 효의 실천은 아래에서 위로의 교육적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 될 수 있으며 효는 태자는 물론 백성들에게도 배워야하는 인륜(人倫)이라고 하였다. 『대학강의(大學講義)』에서 김희는, “제(悌) 또한 인(仁)에 속하는가?” 라고 다산에게 묻는다. 다산은 그에 대답하기를, 내가 생각하기에 일찍이 들으니, “효·제(孝·弟)는 인(仁)을 행하는 근본이다.”<sup>24)</sup>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다산의 생각은 제(弟) 또한 인(仁)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맹자』에서, “학(學)은 하·은·주 삼대가 함께 한 것이니, 모두 인륜을 밝힘이다.”고 하니, 인륜을 밝힌다는 것은 효·제를 밝힘이 아니겠는가. 원래 선왕이 사람을 가르치던 법에는 세 가지 큰 조목이 있었다. 첫째는 덕이요, 둘째는 행이요, 셋째는 예이다. 대사도(大司徒)의 향삼물(鄉三物)에서 열거한 육덕·육행·육예는 세부 조목이다. 대사악이 제왕의 말을 가르쳤던 것도 이 세 가지일 뿐이다. 저기에서는, 충·화로 육덕을, 효·우로 육행을 삼았는데, 이를 ‘덕’이라 통칭한 것은 덕·행은 함께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서·예악·현송·무도·활쏘기와 말타기·글쓰기와 셈하기는 모두 육예이다. 일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여러 가지 예(藝)에 있지만 그 근본 가르침은 효·제 일 뿐이다. 이로 보면 명덕이란 효·제가 아니겠는가.<sup>25)</sup>

이것은 예의 근본 가르침 또한 효와 제라 함을 말하고 있으며 명덕을 효·제로 간주하는 맹자의 생각이 여실히 들어나는 문장이다. 다산역시 효·제를 명덕이라고 보았는데 맹자와의 차이점을 들자면 다산은 효·제·자로서 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다산이 주장한 제(弟)란 무엇을 말함인가. 우선 우리는 제에 관한 정의를 도출해내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라 함은 한자의 의미 그대로 형제간의 우애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다산의 『대학공의』에서 보여지는 효·제·자의 제란 형제간의 공경심에서 확대되어 사회의 연장자 혹은 신분이 높은 자에 대한 공경심까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전자가 보다 단순하고 단일한 혈연적 유대감이라면, 후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제나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 사회의 덕망 있는 자를 공경하는 것,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를 공경하는 것등 여러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sup>26)</sup>

다산은 제를 단지 웃어른에 대한 공경에 그친 것이 아닌 동료로 동료로 섬기는 것<sup>27)</sup>으로 풀이

24) 『大學講義』傳九章：憲曰“悌亦屬仁耶.” 鏞曰“當聞之‘孝弟也者，其爲仁之本’，可知悌亦屬仁矣.”

25) 『大學公議』：孟子曰，“學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 明人倫，非明孝弟乎. 原來先王教人之法，厥有三大目，一曰德，二曰行，三曰藝. 大司徒鄉三物所列 六德·六行·六藝，其細目也. 大司樂教胄子，亦只此三物而已. 彼以忠和爲德，孝友爲行，而大司樂通謂之德者，德行可互稱也. 詩書·禮樂·弦誦·舞蹈·射御·書數 皆藝也. 雖其恒業之所肆習在於諸藝，而其本教則孝弟而已. 明德非孝弟乎.

26) 백민정(2007), 「丁若鏞철학에서 ‘孝弟’관념이 갖는 公的의미」, 한국 실학연구 23, p.256.

27) 『大學公議』：長其長者，弟也.



한다. 또한 제라는 뜻이 가족 안에서의 형제간의 우애뿐만이 아닌, 부부사이의 공경, 벗과 벗의 공경, 나아가 『대학』에서는 임금이 같이 학문을 교류하는 스승과 신하들과의 공경, 그리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서로간의 공경을 말하는 것이 된다. 다산이 『대학공의』에서 경에 이르기를 윗사람이 어른을 어른답게 대하면 백성들도 공경한다고 했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공경하게 한 자가 백성을 친히 여기는 것이다.<sup>28)</sup>라고 한 것처럼 제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공경이라고 하겠다. 상대방에 대한 공경이라는 것이야말로 상대를 나와 대등한 존엄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에서 보여지는 교육의 주체와 교육의 대상은 누가 될 것인가. 가정에서 형제간에서 서로 공경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제 안에서 존재하는 제의 교육의 주체와 객체는 상호보완적인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수평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부부사이의 수평적 관계로 연결되며, 학교에서 벗과 벗의 수평적 관계, 국정에서 임금과 스승과 신하의 상호교류에 의한 수평적 관계, 더 나아가 나라 안에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평적 관계는 교육의 주체와 그 대상이 서로 공경이라는 마음으로 교육을 행하여 상호간에 교환되어지는 교육이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산이 말한 『대학』에서의 제는 어떤 실천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산은 『대학공의』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마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고 그 연장자를 연장자로 존중하면 천하가 다스려진다.”<sup>29)</sup> 내가 생각하건대 이 경문에서 말한 ‘명덕을 천하에 밝힌다’는 것은 친민이며, 맹자의 이 말씀 또한 친민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밝혀야 할 것은 허령불매한 덕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긴다(親其親)는 것은 효도(孝)이며, 그 연장자를 연장자로 존중한다[長其長]는 것은 존중[弟]이다.<sup>30)</sup>

즉 이것은 연장자를 연장자로서 존중한다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한다는 것을 말함이며, 마지막장인 평천하 장의 ‘상장장(上長長)’의 대목에서는 장장(長長)은 세자가 학궁에서 나이로 차례를 정한다.<sup>31)</sup>하여 윗사람이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하면 백성들에게 공경의 기풍이 진작되어 임금이 제로써 실천하면 백성들 또한 웃어른을 웃어른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여 행동하는 기풍이 저절로 생성된다 말했다. 이는 효와 마찬가지로 제를 실천함으로써 평천하를 이룩할 수 있다는 다산의 생각이 명확히 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윗사람이라 함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난 모든 동료를 아우르는 말이다.

28) 『大學公議』: 經曰“上長長而民興弟”, 使民興弟者, 親民也.

29) 『大學公議』: 孟子曰, 人人親其親, 長其長, 而天下平.

30) 『大學公議』: 鋪案, 經曰“明明德於天下”者, 親民也, 孟子此言, 亦親民也. 然則民之所明非虛靈不昧之德, 審矣. 親其親者, 孝也, 長其長者, 弟也.

31) 『大學公議』: 長長, 謂世子齒于學也.

또한 다산은 『대학공의』의 성의(誠意)에 대하여 효·제·자를 실천하는 방략이라 하였는데 제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부분을 웃어른께 공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번 부름에 응하더라도 반드시 정성을 다하고, 한 번 질문에 답하더라도 반드시 정성을 다하고, 한 번 어려운 일을 맡을지라도 반드시 정성을 다 하고, 한 번 지팡이를 들어드려도 반드시 정성을 다 하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여도 반드시 정성을 다 하고, 학업을 받들어 마음을 닦더라도 반드시 정성을 다 해야 하니 이를 ‘성의(誠意)’라 한다.<sup>32)</sup>하여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다산의 『대학공의』에서 보여지는 제의 교육적 관계는 큰 의미로는 나라의 임금이나 위사람을 위사람으로써 공경하는 공경심을 보임으로써, 나아가 백성들에게도 전해져 백성들이 서로 서로를 공경하는 수평적인 교육관계가 성립되면 그것은 나라의 평안으로 이어지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IV. 자(慈)의 위에서 아래로의 관계

효(孝)는 아래에서 위로 전달되는 교육적 관계를 포함한 실천윤리이며, 제(弟)는 상호보완적인 수평적 교육관계를 포함한 실천윤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慈)에는 어떠한 교육적 관계가 포함되어있는 것인가.

다산은 효·제가 우리 마음 안에 없고, 덕을 닦음으로써 마음 밖에서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산은 오직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만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선천적인 것이고, 이와 달리 효와 제는 어떤 사태나 대상과의 관계에서 感發을 받음으로써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구별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세 가지 가운데 오직 사랑(慈)만이 사람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사랑으로 비유를 들어 그 효·제까지 힘쓰도록 한 것이다. 옛 사람은, “자식을 길러보아야 부모의 은혜를 알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자(慈)가 효(孝)를 깨우쳐 준 것이다. “효도로 인해서 부모가 낳은 자식을 공경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자(慈)가 제(弟)를 깨우쳐 준 것이다.<sup>33)</sup>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을 효(孝)라하고, 형제끼리 우애하는 것을 제(弟)라하고,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것을 자라고하니 이른바 오교이다. 아버지 섬기는 것을 바탕으로 높은 이를 존경함으로써 군도가 세워지고, 아버지 섬기는 것을 바탕으로 어진 이를 어질게 여김으로써 사도가 세워진다.

32) 『大學公議』: 欲弟於其長者, 趨一召必誠, 對一問必誠, 服一勞役必誠, 奉一几杖必誠, 有酒食饌之必誠, 受學業修之必誠, 斯之謂誠意也.

33) 『大學講義』傳九章: 鏞曰 “三者之中, 惟慈人所易有, 故必因此立喻, 而勉其孝弟. 古人云 “養子方知父母恩”, 是喻於孝也. 因孝而敬父母所生之子, 是喻於弟也.”

형을 섬기는 일을 바탕으로 尊長을 섬기고 자식 기르는 일을 바탕으로 대가를 부린다. 부부란 함께 그 덕을 닦음으로써 안을 다스리는 사이고, 친구란 함께 그 도를 따름으로써 밖을 돕는 사이다. 그런데 자식 사랑만은 힘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성인이 입교할 때 유독 효와 제만을 가르쳤다.<sup>34)</sup>

오교(五教)의 다섯 가르침은 “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로서 다산은 이를 간단히 줄여 ‘효·제·자’로 불렀다. 그리고 이 효제자로부터 확장해 나가 군주와 스승, 연장자를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부부관계 및 봉우관계 역시 효·제·자를 바탕으로 형성,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도 다산은 지식에 대한 사랑(慈)만이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처음 가르침을 세울 때(立教) 곧 자(慈)에 근거해서 효와 제를 설교했다고 말했다.<sup>35)</sup>

이것은 효·제(孝·弟)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이고 자(慈)만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그것이 효와 제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 것이다. 그러나 맹자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양능이고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이 양지라고 말하였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정도의 어린아이는 누구라도 부모를 사랑할 줄 알고, 나이 들어서 자신의 형을 공경할 줄 안다.<sup>36)</sup>라 하여 효와 제 또한 자와 마찬가지로 저절로 알게 되는 덕이라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를 한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애로움이며 뒷사람이 앞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인륜이다. 그렇다면 자에서 보이는 교육적 관계란 무엇인가. 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위에서 아래로 행하여지는 내리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되며 그 교육의 대상은 자식이 되어 위에서 아래로 전해지는 교육적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가족 관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효·제(孝·弟)와 마찬가지로 자(慈) 또한 가정에서, 가문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나아가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천윤리가 된다. 가문에서는 웃어른이 아랫사람에게 교육을 행하여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교육을 가르쳐 사랑으로 대하며, 나아가 국가에서는 임금이 백성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사랑을 베푸는 실천윤리의 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자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무엇이 되는가. 자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구체적인 교육방

34) 『茶山詩文集』 卷十：原，原教，愛養父母之孝，友於兄弟謂之弟，教育基子謂之慈，此之謂五教也。資於事父，以尊尊而君道立焉，資於事父，以賢賢而師道立焉，慈所謂生三而事一也。資於事兄以長長，資於養子以 使衆，夫婦者，所與共修此德，而治其內者也。朋友者，所與共講此道，而助其外者也。然唯慈者，不勉而能之，故聖人之立教也，唯孝弟是訓。

35) 『大學公議』 卷一 「舊本大學」：‘在明明德’。堯典曰，慎徽五典，曰，敬敷五教，五典·五教者，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也。春秋傳史弟克之言，明白如此，然兄友弟恭，合言之則弟也。父義母慈，合言之則慈也。然則孝弟慈三字，乃五教之總括。太學之教胄子，胄子之觀萬民，其有外於此三字者乎。

36) 『孟子』(盡心上)：孟子曰人之所不學而能者，其良能也，所不慮而知者，其良知也。孩提之童，無不知愛其親也，及其長也，無不知敬其兄也。親親仁也，敬長義也，無他，達之天下也。

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산은 경에 이르기를 윗사람이 고아를 구휼하면 백성들이 배반하지 않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배반하지 않게 하는 자가 백성을 친히 여기는 것이다.<sup>37)</sup>라 하여 상홀고(上恤孤)의 실천방법을 제시한다. 홀고는 천자가 외로운 아이를 보살핌이다<sup>38)</sup>라는 뜻으로 윗사람이 고아를 구휼하면 백성이 저버리지 않으니<sup>39)</sup> 임금의 사랑으로써 나라의 고아를 구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산은 『대학강의(大學講義)』에서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김희가 말했다. “윗구절의 예를 보면 당연히 ‘윗사람이 어린이를 어린이로 대하면 백성이 자애로움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르기를 ‘고아를 구휼하면 백성이 등지지 않는다’고 말하니, 무엇 때문인가?” 정약용이 대답하였다. “효제(孝悌)는 반드시 감화가 발현된 이후에 흥기할 수 있다. 오직 자애로움만은 가르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다. 어찌 윗사람이 행해야 아랫사람이 본받는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어찌 어린이를 어린이로 대함이었는가? 고아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윗사람이 이를 불쌍히 여기면 백성들은 이에 흥기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미 죽은 자신의 오랜 벗을 등지지 않고서 모두 고아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것이 어린이를 어린이로 대하는 극치이다.”<sup>40)</sup>

다산이 이러한 상홀고(上恤孤)의 가르침을 설교한 이유는 나라의 가장 불쌍한 고아를 보살핌으로써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이를 본받아 아랫사람을 보살필 것이고 이것은 나아가 나라를 평안하게 하여 치국평천하를 이룰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이것은 임금이 자라고 하는 위에서 아래로의 교육을 전수하는 것으로 백성들도 그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의 교육인 자(慈)를 실천하는 내리사랑을 말함이다. 또한 자(慈)를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대학』에서 실행되었던 효·제·자라는 교육의 내용을 임금의 실천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행하게 하려한 위에서 아래로의 자의 관계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산의 『대학공의』에서 보여지는 자의 교육적 관계는 큰 의미로는 나라의 임금이 고아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마음이 나아가 백성들에게도 전해져 백성들이 가족뿐만이 아닌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위에서 아래로 전수되는 교육관계가 성립되면 그것은 나라의 평안으로 이어지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37) 『大學公議』: 經曰"上恤孤而民不倍", 使民不倍者, 親民也.

38) 『大學公議』: 恤孤, 謂天子饗孤子也.

39) 『大學公議』: 上恤孤而民不倍.

40) 『大學講義』傳九章: 憲曰, '以上句例之, 則當曰"上幼幼而民興慈", 今言"恤孤不倍", 何也.' 鏞曰, '孝弟必須感發而後興起, 唯慈者不待教而能也, 豈曰上行而下效乎. 豈幼人之幼, 而孤者最可憐, 上能恤此, 則民興於是而不倍其故舊之已死者, 而皆能恤孤. 此幼幼之極致也.'

## V. 結語

다산은 『대학』에서 효·제·자의 규범이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자신에게 실행되는 것이 명명덕이요 백성에게 실현하는 것이 친민이라 하였다.<sup>41)</sup> 또한 다산은 친민(親民)의 민을 하민(下民)이나 소민(小民)으로 해석함으로써 명덕과 친민을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명덕은 수기의 효·제·자로 친민은 치인의 효·제·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다산은 효·제·자의 구분에 있어서 효·제는 우리 마음 안에 없고, 덕을 닦음으로써 마음 밖에서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직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즉 자만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효와 제는 어떤 사태나 대상과의 관계에서 깨우침을 얻어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구별하였다. 그러나 효·제·자의 덕목은 백성모두가 실천해야하는 덕목임에는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다.

다산은 『대학공의』에서 『대학』을 태자가 배우는 곳으로 규정하지만 그 내면을 해석한다면 대학에서의 교육내용은 즉 인륜을 행하는 데에 있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산이 말했던 집안이 가다듬어진 후에 나라가 다스려지며, 자식으로서 남들의 본보기가 되는 것은 효도에 그침이며, 부모로서 남들의 본보기가 되는 것은 사랑에 그침이며, 형제로서 남들의 본보기가 되는 것은 공경에 그침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법 또한 명덕으로 백성을 새롭게 함이니, 성의, 정심, 수신은 명덕의 조목이 될 수 없음이 여기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sup>42)</sup>라는 말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효·제·자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 져야하며 명덕은 오로지 효·제·자로써 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즉 다산은 명덕이란 결국 인륜을 의미하며 명명덕이란 인륜을 밝히는 데 있기 때문에 태학의 도는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이는 결국 다산이 말하는 대학의 도는 효·제·자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라 풀이할 수 있다. 이렇듯 대학의 도에 해당하는 효·제·자는 결국 대학에서 교육되어야할 내용을 말한다.

다산이 교육의 실천윤리로 주장한 효·제·자안에는 교육적 관계가 내재되어 있다. 효(孝)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에서 비롯하며, 교육의 주체는 자식이 되며 그 대상이 부모가 되는 아래에서 위로의 교육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제(弟)는 가족 안에서는 형제의 우애를 포함하며 넓은 의미로는 동료와 동료사이의 공경으로부터 비롯되는 상호보완적인 수평적 관계가 내재되어 있다. 제에서의 교육적 주체와 대상은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관계라 정의할 수 있다. 자(慈)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애로움으로 비롯되는 아래에서 위로의 관계로써 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되며 그 대상은 자식이 되는 내리사랑을 말함이다. 그러나 효·제·자의 교육적 관계는 비단 가정에 한정 되어있는 것이 아니며 가정, 가문, 학교, 나아가 국가에서까지 통용되어야 하는 실천윤

41) 금장태(2004), 『도와덕:다산과 오규 소라이의 《중용》·《대학》 해석』, 파주: 이플리오, p.199.

42) 『大學公議』: 議曰, 此家齊而后國治也. 爲人子足令人法之者, 止於孝也, 爲人父足令人法之者, 止於慈也, 爲人兄弟足令人法之者, 弟也. 治國之法亦明德以新民, 則意, 心, 身不可爲明德之條目於斯明矣.

리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효·제·자안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적 관계를 고찰해 보면 결국 아래에서 위로의 관계(孝), 쌍방의 수평적 관계(弟), 위에서 아래로의 관계(慈)가 모두 함께 이루어져 결국에는 나이의 많고 적음, 신분의 높고 낮음, 학식의 높고 낮음을 떠나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하는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결국 이러한 효·제·자의 가르침은 결국 모든 인간의 교육적 관계를 내포한다 할 수 있겠다.

다산은 이러한 교육적 관계가 내재되어 있는 효·제·자의 가르침은 가장먼저 임금이 배우고 실천해야하며 임금이 실천하면 그것을 본받아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효·제·자의 기풍이 일게 되어 나라가 평온해지는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경지에 이른다 하였고, 그리하여 효·제·자란 태자의 덕목인 동시에 백성이 실천해야할 인륜(人倫)으로 정리한 것이다. 다산은 효·제·자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노인을 노인으로 섬기는 상노노(上老老와), 웃어른을 웃어른으로 공경하는 상장장(上長長), 나라의 고아를 구휼하는데 힘쓰는 상홀고(上恤孤)를 제시하며 그것들의 실천을 통하여 나라의 만백성이 임금에게 충성하여 평천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다산은 효·제·자라는 교육적 관계가 함유된 실천윤리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려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군자는 효·제·자의 가정교육에서 벗어나지 않고 국가의 교육을 이룬다는 구절과 어울리는 듯하다.<sup>43)</sup>라는 말에서 보여 지듯이 효·제·자의 교육의 가정과 국가에서 이루어져야할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다산은 『대학공의』에서 실천윤리로 효·제·자를 제시하며 그것의 교육을 주장했으며, 효·제·자안에는 임금과 백성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적 내용과 덕목, 관계를 포함하고 이것의 실천으로써 가정을 평안하게 하며 나아가 나라의 평안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가 중요시 했던 효·제·자는 모든 인륜의 관계를 아우르는 덕목으로써 다산은 그것을 『대학』의 가장 중요한 실천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효·제·자의 덕목은 비단 과거에서만 지켜져야 할 실천윤리가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 되는 동시에 지켜야하는 실천윤리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3) 『大學講義』傳九章：鏞曰“君子不出家而成教於國，似可照應也。”

## 참고문헌

『大學公議』  
 『大學講義』  
 『大學章句』  
 『茶山詩文集』  
 『孝經』  
 『孟子』

- 금장태(2004). **도와덕:다산과 오규 소라이의 《중용》·《대학》 해석**. 파주: 이끌리오.
- 박완식(1993). **대학·대학혹문·대학강어**. 서울: 이론과 실천.
- 박완식(2010). **다산대학**. 전북: 전주대학교 출판부.
- 백민정(2007). 丁若鏞철학에서 ‘孝弟’관념이 갖는 公의 의미. 한국 실학연구 23.
- 백민정(2009). 正祖와 茶山の 『대학』에 관한 철학적 입장 비교. 퇴계학보 126권.
- 신지연(2007). 茶山の 『다산』에 대한 觀點과 解釋. 한문고전연구 15.
- 신창호(2001). 「**대학**」의 **교육론 산책**. 인천: 내일을 여는 책.
- 신창호(2007). 『大學章句』 「序」에 담긴 教育의 體系 探究. 동양철학연구 제49집.
- 신창호(2010). **대학**. 유교의 지도자 교육철학. 파주: 교육과학사.
- 신창호(2011). 백호 윤희의 대학해석. 퇴계학 논총 제18집.
- 이성춘(1993). 茶山 丁若鏞의 天命思想과 人論. 범한 철학회 8.
- 이성춘(1996). 茶山 經書解釋과 天觀. 한국 종교사학회 4.
- 이을호(1974). **정다산의 대학공의**. 서울: 명문당.
- 임옥균(2010). 주자와 일본 고학파의 『대학』 해석. 동양철학연구 제61집.
- 임옥균(2012). **주자학과 일본고학파**.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임재윤(1994). 茶山 經學思想의 教育目的論的 理解. 한국 교육사학 제16집.
- 임현규(2008). 朱子와 茶山の 『대학』에 관한 觀點 비교(1):대학과 그 편제. 한국사상과문화45.
- 임현규(2009). 朱子の 『大學』 관에 대한 茶山の 비판(2). 퇴계학과 유교문화.
- 오병문(2008). 『대학공의』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교육개혁사상.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준호(2003). 『大學公議』를 통해 본 茶山 丁若鏞의 『大學』觀. 한국철학논집, 한국철학사연구회, 12권.
- 한재훈(2012). 朱子の ‘新民’ 해석과 ‘道統論’의 함수관계. 한국 공자학회 12.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al Subjects in Dasan's 『Dàxuégōngyì』 — *piety*(孝), *admiration*(弟), *mercy*(慈) —

Moon Sook Jo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fundamental ethics of practice that Dasan Jung Yak-yong(1762-1836) argued at the book, “Dàxuégōngyì大學公議, *The Public debate of Great Learning*”,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in agents of education. “Dàxuégōngyì”, the book that Dasan wrote when he was 53 years old at his exiled place, Gangjin. As the title suggested, Dàxuégōngyì, it could be recognized as the impartial view based on the critical perspective to Zhūxī(朱熹)’s opinion.

Zhuxi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Great Learning* 大學” as a study of the Great people and argued that “*Great Learning*” is the study for all the people should learn. On the other hand, Dasan claimed that “Tàixuézhīdào大學之道” in “*Great Learning*” is the study for the prince, not for the normal people. And he also interpreted “Dàxué 大學” as the school for teaching prince. In addition, “*Great Learning*” suggested the three practical principles; to illustrate illustrious virtue; to renovate the people; and to rest in the highest excellence. However, Dasan argued different way and emphasized three ethics of practice; filial piety(孝), admiration(弟), mercy(慈) and regarded as illustrious virtue of “*Great Learning*.” He denied the three principle of “*Great Learning*” that Zhuxi reorganized and suggested including renovating the people(新民), and provided that close to the people(親民) is one of the main principles of “*Great Learning*.”

According to Dasan, if the king practices these three ethics of practice including filial piety, admiration, and mercy, so that the people will practice these ethics voluntarily. In other words, he indicated that the practice of three ethics is not only for the prince in the loyal family, but also for principles to educate the people in the nation. Thus, three ethics by Dasan including filial piety, admiration, and mercy could be recognized as the



symbol of humanity. In other words, Dasan's three ethics in "Great Learning" can be recognized as the practical principles including educational issues and educational interactions. If these three ethics can be referred as the symbol of humanity as mentioned above, the implicit educational interactions are specifically constructed within the basic assumption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larify the specific ethics of practice by the indicating specific subjects and objects in the educational interactions between these three ethics of practice. Also, it helps more clear comprehension about the "Dàxuégōngyì大學公議, *The Public debate of Great Learning*", by Dasan.

**Key words:** Jung Yak-yong, Dàxué, Dàxuégōngyì, Myongdoeg, piety(孝), admiration(弟), mercy(慈)

논문투고일자: 2019.07.15.

논문심사일자: 2019.08.02.

게재확정일자: 2019.08.12.